신생검으로 진단된 성인 원발성 사구체 질환의 임상 및 병리소견

계명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1], 병리학교실[2]

장미현[1] · 박우영[1] · 김정은[1] · 윤정수[1] · 진규복[1] · 황은아[1] · 한승엽[1] · 박성배[1] · 김현철[1] · 최미선[2]

Clinical and Pathological Analysis of Primary Glomerulonephritis Diagnosed by Percutaneous Renal Biopsies

Mi Hyun Chang[1], Woo Young Park[1], Jung Eun Kim[1], Jeong Soo Yoon[1], Kyu Bok Jin[1], Eun Ah Hwang[1]
Seung Yeup Han[1], Sung Bae Park[1], Hyun Chul Kim[1], Mi Sun Choe[2]

Departments of Internal Medicine[1], Patholgy[2],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목 적 : 신생검으로 진단된 국내 성인 원발성 사구체 신염의 임상양상과 병리소견을 분석하고 연령대와 시기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 법 : 1978년부터 2006년까지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신생검을 시행한 15세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식신 생검 및 B형간염이나 루푸스 등 2차성 사구체 신염을 제외하고 원발성 사구체 신염으로 진단된 1,685례를 대상으로 신생검 당시 임상양상과 병리소견을 연령대, 시기에 따라 분석 하였다.

결 과 : 대상환자 1,685명의 신생검 당시 평균연령은 35.4세 (15-82세)이었으며 남녀 비는 1.45:1 이었다. 신생검의 적응증은 신증후군 970례 (45%), 무증상 요이상 540례 (30%), 급성 신염 증후군 43례 (5%), 만성 신염 76례 (4%), 육안적 혈뇨 51례 (3%)이었다. 적응증을 연령대별로 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신증후군이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무증상 요이상은 20세 이하에서는 35%, 21-40세는 34%, 41-60세는 32%, 60세 이상은 14% 이었다. 시기별로 적응증을 살펴보면 85년 이전에는 신증후군이 84% 이었으나 2001년 이후 신증후군은 38%로 감소한 반면 무증상 요이상은 85년 이전 6%에서 2001년 이후 51%로 증가하였다. 병리소견은 IgA 신병증이 620례(26%)로 가장 많았고 최소변화 신증 488례 (22%), 막성 신염 209례 (9%), 초점분절 사구체 경화증 176례 (8%), 막증식성 사구체 신염 69례 (3%)의 순서를 보였다. IgA 신병증은 20세 이하에서 27%, 20-40세 30%, 41-60세 26%, 60세 이상 8%로 60세 미만에서는 모든 연령군에서 가장 많았으며 최소변화 신증은 연령대별로 각각 25%, 22%, 17%, 18%의 소견을 보였다. 60세 이상에서는 막성 신염이 26%로 가장 많았다. 시기별로는 IgA 신증이 1985년 이전 1%에서 2001년 이후 37%로 증가하였고, 반면 최소변화 신증은 37%에서 15%로 감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점분절 사구체 경화증, 막증식성 사구체신염은 시기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결 론 : 국내 성인 원발성 사구체 신염은 과거 최소변화 신증이 가장 많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IgA 신병증이 가장 많았고, 신생검의 적응증도 과거 신증후군이 주였으나 최근 무증상 요이상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검진, 건강검진 등에서 요검사의 이상을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생검을 시행하여 진단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